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청 3기 의장단 출마의 변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003. 3. 18)

2. 分 析

가. 文 件 概 要

- 1)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하 한청) 명의의 유인물로, 한청 3기 출범을 알리며,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하에 1, 2기의 성과를 계승한 한국청년운동 및 6.15 공동선언의 기치하에 반미반전운동의 선봉대로서 투쟁을 선전하고 있는 총 2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한청 3기 출범을 알리며,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하에 1, 2기의 성과를 계승한 한국청년운동을 주장하고 있음(1-2쪽).

“한청의 3기는 한국청년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예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략.....막중한 임무가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1쪽)

- 2) 자주 민주 통일의 관점에서 6.15 공동선언의 기치하에 반미반전운동의 선봉대로서 투쟁을 선전하고 있음(1쪽).

“또한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여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반미반전운동의 선봉대로서.....중략.....투쟁하고 조직하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3) 한청에 의한 청년운동의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음(2쪽).

3. 總 評

본 문건은 한청 3기 출범을 알리며,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하에 1, 2기의 성과를 계승한 한국청년운동 및 청년운동의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6.15 공동선언의 기치하에 반미반전운동의 선봉대로서 투쟁을 선전하고 있는 등 반미, 반정부적 성향의 강도 높은 비판적 주장인 내용임.

2003 年 4 月 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崔 景 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3기 출범선언문”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上同(2003. 3. 23)

2. 分 析

가. 성 격

本 文 件은 반미 자주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이른바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2003년 3기 출범선언문임.

나. 문 제 내 용

1) 이른바 한청이 국내 반미통일운동의 성장속에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힘.

“오늘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의 개척자로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고수 관철하려는 조국과 민족의 요구에 부응하며 한국청년의 애국적 의지를 담아 제3기 한국청년단체협의회출범을 선언한다. ... 87년 이후 줄기차게 진출하고 전진해 온 한국청년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를 내리자는 수정주의와 분열주의자들의 획책과 혼란으로 갖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 ... 2002년 2기 들어서면서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운동이 급속히 성장발전하고 국민대중의 반미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유리한

정세속에서 우리 한청은 '이적규정'이라는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1면)

2)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에 대항하여 민족공조와 반미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주장함.

“미국에 의한 비열하고 악랄한 전쟁 책동은 결국에는 우리 민중들의 생존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다. 민족의 아들, 딸인 우리 청년들은 한반도 전쟁 책동을 우리 민족대 미국의 대립구도로 만들어내며 북미간 불가침조약체결을 통하여 평화적 해결의 방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투쟁, 반미반전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1면)

3) 이른바 친미 반통일 반민족 세력에 대한 척결 투쟁, 한청 이적규정 저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주장함.

“아울러 우리는 싸움판에서 말릴려는 생각보다 돈벌려는 놈이 있듯이 한반도의 긴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무리들에 대한 반대 투쟁도 전개할 것이다. ...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 위기에서 철저히 미국의 편에 서서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수구보수 세력 척결을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 수구보수 언론과 정치인, 공안세력들에 대하여 우리는 청년의 양심을 걸고 이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기세를 모아 한청 이적규정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로 이어갈 것이다.”(1-2면)

3. 總 評

본 문건에서는

- 1) 이른바 한청이 국내 반미통일운동의 성장속에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 2)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에 대항하여 민족공조와 반미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주장함.
- 3) 또 이른바 친미 반통일 반민족 세력에 대한 척결 투쟁, 한청 이적규정 저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주장함.

이상에서는 미국과 국내 친미세력에 의해 한반도 평화 통일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른바 자주민주통일을 기치로 한 반미 투쟁, 반통일세력척결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바,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통일투쟁노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친북 <용공> 성향의 유인물로 판단됨. 끝.

2003 年 5 月 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정 응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일제잔재 청산과 영문국호 Corea 되찾기 청년토론회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3. 5. 13)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한청협”에서 발행한 18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0 전반적인 내용이

-‘Corea’ 되찾기 운동의 현 단계와 의의, 향후 전망 및 과제 등에 관한 토론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1) 청년운동이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주력군, 선봉대로서의 대중 의식화, 조직화 등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청년대중운동단체가 ‘국호 되찾기 운동’에 앞장서 투쟁할 것과 독도 지키기 운동 등 민족문제와 결합하여 진행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청년대중운동으로서 국호 되찾기 운동 제안...청년운동은 기본적으로 대중운동이다...소모임이 꾸준한 자기 대중사업을 가지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청년운동은 자주민주통일의 주력군, 선봉대로서의 대중 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에 충실하여야 한다...우리 당 독도 지키기 운동, 동해 표기 찾기 운동 등 반일 민족문제와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17-18쪽)

(2) 우리나라의 국호가 Crea로 700여년간 사용하여 오다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혼용을 거듭 하였으며, 1910년 일본에 의해 Korea로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Corea' 국호를 되찾기 위해 일제 잔재 청산과 일본군국주의 저지, 남북관계 개선, 남북이 민족적 공동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학술회의 개최,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는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

< 예문 >

-3. korea로 분단된 조국 Corea로 통일하자. (5쪽)

-역사적으로 국호가 바뀌게 된 경위와 일제의 잔악성...700여년간 국호로 사용된 Corea...19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계기로 하여 일본을 위시로 서구 열강이 조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무렵부터 친일 외국인들은 'Korea'를 혼용하기 시작했다...1910년부터는 'Korea'만을 쓰도록 일본에 의해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10쪽)

-Corea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북미간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작업과 연동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북일 수교 및...남북관계의 급진전이다...일제 잔재 청산과 일본 군국주의화의 저지...투쟁을 가속화해야 한다...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남북이 민족적 공통점에 기초하여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긴요하다...향후 대중적인 확산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3-15쪽)

3.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Corea'로 700여년간 사용하여 오다가 1910년부터 일본에 의해 'Korea'로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호 되찾기 운동에 청년학생들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청년운동이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주력군, 선봉대로서의 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남북이 민족적 공통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학술회의 개최,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는 작업의 선행 등을 촉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문건의 표출된 내용만으로 좌익, 용공성향의 문건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 제시가 미흡한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 끝 >.

2003 年 6 月 2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송 경 호 印

鑑 定 書

035272

1. 對 象

- 가. 文 件 名 :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자기혁신을 위한 제언1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불명시(2003.8)

2. 分 析

가) 문건의 개요:

이 문건은 미상의 인터넷 공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미상의 다른 사이트로부터 옮겨 온 자료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자기 혁신을 위한 제언” 제하의 이 문건은 익명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혁신을 위한 제언과 함께 지도부에 비판을 담고 있음.

나) 내용 분석:

(1) 이 문건에 실린 <정세 분석>에서는 조미대결구도가 현 한반도 정세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북의 사회주의 혁명역량과 무적의 무장력이 조선혁명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역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소위 ‘조선혁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주장인 한편, 북한의 군사력을 선전하는 주장임.

<예시>

“이북의 사회주의 혁명역량과 무적(無敵)의 무장력은 조선혁명에 있어서의 주체역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혁명의 역량편성에 있어서 전국적 관점입니다.”(1면)

(2) 이 문건에서는 현 시기의 미국의 전쟁반대책동분쇄 투쟁의 의의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것이 전쟁반대평화실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의 전략전술상, 전쟁 주체인 미국에 대한 전술적 타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주장은 곧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상의 한 전술적 형태로서, 반미투쟁을 요구하는 것임.

<예시>

“우리가 현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의 전략전술 가운데서 미국의 전쟁반대분쇄투쟁의 의의는 실제로 전쟁정세를 가정한 전쟁반대평화실현의 방향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주체인 미국에 대한 전술적 타격에 있어서 투쟁의 의의를 지닙니다.”(3면)

(3) 전체적으로 이 문건은 한청의 구성원인 익명의 작성자가 인터넷상에 게시한 것으로서, 한청 지도부의 정세분석과 투쟁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담고 있음. 이 문건에서는 북한정권이 소위 '조선혁명'의 주체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미화하여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상의 전술적 형태로서 반미투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總 評

이 문건은 한청의 구성원인 익명의 작성자가 인터넷상에 게시한 것으로서, 한청 지도부의 정세분석과 투쟁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담고 있음. 이 문건에서는 북한정권이 소위 '조선혁명'의 주체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미화하여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위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노선상의 전술적 형태로서 반미투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문건은 북한정권의 군사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임. (북한정권의 활동 동조)

2003年 8 月 23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유 지 응 (印)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위한 제언-두 번째 전략전술”

나. 作 成 者 : 최명진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www.youthkorea.org (2003. 8. 28)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youthkorea.org 게시판에 올려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자기혁신을 위한 제언 - 두 번째 전략전술’이라는 제목의 첨부 자료로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제로서 점령군으로 존재하는 남한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지배를 제거하고, 침략군으로 존재하는 이북에 대한 적대 책동을 제거하며, 나아가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은 계속 전진해야하는 항구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1국가 2체제 2개의 지역정부로의 연방통일국가방안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제로서 점령군으로 존재하는 남한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지배를 제거하고, 침략군으로 존재하는 이북에 대한 적대 책동을 제거하며, 나아가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제의 식민지라는 남한사회에 대한 평가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 과제는 점령군으로 존재하는 이남지역에 대한 미제의 지배와 수탈을 제거하고, 침략군으로 존재하는 이북에 대한 적대·말살 책동을 제거함으로써 전민족적 자주성을 쟁취해 나가는 거족적인 투쟁입니다. 따라서 이 과제는 이남지역에 주둔해 있는 주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 이로써 우리 민족은 ... 미제의 식민지로서 억압과 수탈을 한쪽은 미제의 ... 맞이하게 되었습니다.”(3쪽)

2) 한국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은 계속 전진해야하는 항구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혁명, 즉 이북의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이남의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은 계속 전진해야하는 항구적 과제입니다.”(4쪽)

3) 1국가 2체제 2개의 지역정부로의 연방통일국가방안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은 연방제통일을 뜻합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1국가 2체제 2개의 지역정부로의 연방통일국가방안으로 유일합니다. 자주적 평화통일의 역량은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됩니다.”(4쪽)

- 이 하 여 백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제로서 점령군으로 존재하는 남한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지배를 제거하고, 침략군으로 존재하는 이북에 대한 적대 책동을 제거하며, 나아가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제의 식민지라는 남한사회에 대한 평가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 2) 한국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은 계속 전진해야하는 항구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3) 1국가 2체제 2개의 지역정부로의 연방통일국가방안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본 문건에서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사회를 미제의 식민지라고 평가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지지 및 선동하고 있고,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동조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는 문건이나 구체적 목표나 실천방법 등이 표현되지 않은 문건임. (북한의 대남투쟁노선 동조 및 사회주의혁명사상 찬양 동조)

2003 年 9 月 23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정 원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회의 자기혁신을 위한 제언 ”

나. 作 成 者: 불명

다. 發 行 處(日): 상동 (불명)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회의 자기혁신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글로서, 자주적 평화통일은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미제로부터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민족해방의 근본문제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자주적 평화통일은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 연방통일국가를 수립하면 임무를 완성하게 될 것이며, ... 자주적 평화통일은 연방제통일을 뜻합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1국가 2체제 2개의 지역정부로의 연방통일국가방안으로 유일합니다."(6쪽)

2) 주한미군 철수는 미제로부터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민족해방의 근본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제로부터 전 민족, 전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 자체로 민족해방이자 민족자주실현의 근본문제입니다. ... 이남에게는 식민지 점령군의 철수로 인한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식민지 지배통치체제를 허물어뜨리며 이남 민중의 요구에 따라 민주주의 혁명을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될 것입니다."(8쪽)

3)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 우리의 역할은 ...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시키고 ... 주한미군을 보다 더 빨리 몰아내는 위력적인 투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9쪽)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주적 평화통일은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주한미군 철수는 미제로부터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민족해방의 근본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3)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본 문건은 위와 같이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북한노선을 선전하는 문건이나 구체적 목표나 실천방법 등이 표현되지 않은 문건임.
(용공)

2004 年 3 月 13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正 원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국청년회 강령 ”

나. 作 成 者: 불명

다. 發 行 處(日): 상동 (2003)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한국청년회 강령'으로서, 한국청년회의 강령과 규약 개정을 거론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와 연방제 통일의 공존공영 정신을 부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며 시대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問 題 內 容 分 析

1) 한국청년회의 강령과 규약 개정을 거론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와 연방제 통일의 공존공영 정신을 부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령과 규약을 개정한다고 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와 연방제 통일의 공존공영의 정신을 부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2쪽)

2)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며 시대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은 연방제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천명하는 바이다. ... 연방제는 시대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2쪽)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청년회의 강령과 규약 개정을 거론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와 연방제 통일의 공존공영 정신을 부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 2)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며 시대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문건은 위와 같이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와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통일방안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선전하는 문건이나, 구체적 목표나 실천 방법 등이 표현되지 않은 문건임. (용공)

2004 年 3 月 13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정 원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9차 중앙상임위원회
-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003. 11. 28)

2. 分 析

가. 文件概要

- 1)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9차 중앙상임위원회 자료집으로, 이라크 파병 저지, 한청 이적규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보수우익정치세력 청산, 총선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총 16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部內容

- 1) 이라크 파병저지를 주장하고 있음(6-9쪽).
 “파병철회, 파병압력 미국규탄,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라는.....중략.....한미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결집한다” (8쪽)
- 2) 한청 이적규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9-10쪽).
- 3)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정치세력화 추진 및 총선투쟁을 주장하고 있음(10-15쪽).
 “한청은 민주노총. 전농.....중략.....민주노동당과 함께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10쪽)

4) 낮은 연방제 진입 이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완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11, 15쪽).

“반면 오늘날 변혁의 경로는 낮은단계연방제 진입 이후.....중략.....동시병행적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쪽)

5) 보수우익정치세력 청산을 주장하고 있음(12-15쪽).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켜 보수우익정치세력을 청산하자” (12쪽)

3. 總 評

본 문건은 이라크 파병저지, 한청 이적규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정치세력화 추진 및 총선투쟁, 보수우익정치세력 청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의회주의 틀 내에서의 투쟁을 의미하고 있음.

또한 낮은 연방제 진입 이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완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일부 내용 중에 친북시각이 표출되어 있으나, 북한정권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거나, 북한측의 활동을 찬양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의 내용임. (문제삼기 어려움)

2004 年 5 月 1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崔 景 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제2기 3차 총회준비위원회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003. 2. 12)

2. 分 析

가. 文 件 概 要

- 1)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제2기 3차 총회준비위원회 자료로, 한청이 자주통일의 선봉장이 되자며, 6.15선언의 기치하에 전민족의 대단결 실현, 한청 사수투쟁, 그리고 반미자주화투쟁, 민주민권투쟁, 민중생존권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총 13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한반도 전쟁고조정책 막아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음(1-2쪽).
“미국에 의한 한반도의 전쟁고조정책을 막아내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자”
- 2) 한청이 자주통일의 선봉장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음(2-3쪽).
“한청은 자주와 통일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2쪽)
- 3) 6.15선언의 기치하에 전민족의 대단결 실현을 주장하고 있음(3-4쪽).
“지역사업을 통해 통일운동, 민족대단결운동에 대한.....중략.....대단결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4) 한청 사수투쟁을 선전하고 있음(4-6쪽).

5) 반미자주화투쟁, 민주민권투쟁, 민중생존권투쟁을 주장하고 있음(6, 10쪽).

“민주민권투쟁 :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 등” (6쪽)

6) 총체적 반미투쟁을 주장하고 있음(9쪽).

“식민지 지배체제의 기반을 허물어 나가자-총체적 반미투쟁의 관점 견지”

3. 總 評

본 문건은 한반도 전쟁고조정책 막아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며, 한청이 자주통일의 선봉장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6.15선언의 기치하에 전민족의 대단결 실현을 비롯하여 반미자주화투쟁, 민주민권투쟁, 민중생존권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내용중에 친북 시각이 표출되어 있으나, 북한정권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거나 북한측의 활동을 찬양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는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의 내용임.
(문제삼기 어려움)

2004 年 5 月 1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崔 景 환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3차 중앙상임위원회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3년 7월 1일)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협’)이라는 단체에 의해서 작성된 <3차 중앙상임위원회>라는 제목하 문건의 내용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경우는 외형상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중심이 된 단체를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청협’이라는 단체 관련의 방대한 분량의 내용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청년단체를 위장하고 있는 문건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북한공산정권의 남한 공산화를 전제하는 투쟁의 실천 목적의 불법의 투쟁체인 ‘범민련’이라는 조직의 투쟁목적과 맥락을 같이하는 기본입장을 먼저 밝히고 있다.

이런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에서는 외형상 ‘한청협’이라는 단체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체는 2004년 현재의 시점에서 청년활동은 위장한 민족모순(民族矛盾)에 의한 현재의 체제와 정권을 부정하는 변혁투쟁의 실천투쟁의 선봉이 되며, 노동 농민운동과의 연대투쟁의 선봉이 된다는 투쟁 전략과 전술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문건이다.

이를 특정의 부분을 예로 들며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범민련의 투쟁과 맥락을 같이하는 ‘한청협’이라는 투쟁조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2004년 현재의 시점에서 청년활동의 경우는 민족모순에 의한 변혁투쟁의 실천에 선봉이 되자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혁운동의 선봉대로서 통일전선운동의 매개체, 촉매제가 되며 노동 농민운동의 연대 지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p.3의 중앙의 ‘④ 계급계층 운동의 이해되어야 한다.’하의 내용 전체)

위에서 하나의 예로 제시한 내용의 경우는 관련된 주장의 대표적 내용에 해당하며, 현재의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모순에 의한 체제부정 변혁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내용이다.

pp.2-4의 <보고 3. 본부보고> 하의 내용 전체.

2) 2004년 현재 시점에서의 당면의 정세를 분석하는 부분의 내용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공산정권을 압박하는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반미투쟁의 실천을 전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항의편지를 보내자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는 북한과 미국과의 ‘불가침조약의 체결’까지 내용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시점에서 민족모순에 의한 체제부정의 변혁투쟁의 기본원칙과 실천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북한의 남한 공산화전략과 전술의 실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pp.5-6의 <[당면 정세 요약]> 하의 내용과 pp.6-7의 <[사업계획]> 하의 내용 전체.

3) 위의 민족모순에 의한 체제부정의 변혁투쟁의 기본원칙과 투쟁의 실천과 관련한 내용의 전술적 언급의 내용이다.

아시아의 유관(有關)의 조직 그리고 세계적인 진보단체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의 구체적인 투쟁의 실천과 관련한 전술의 내용이다.

p.13의 하단의 <<별첨 1-7. 27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대회 기획안>> 하의 내용전체의 부분이며, 외형상 한반도의 평화를 위장하나 실제로는 민족모순에 의한 체제부정의 변혁투쟁의 실천 내용이다.

4) 현재의 노무현대통령의 대미정책과 관련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노무현대통령의 대미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단순한 비판의 관점이 아니며, 미국과 연계하여 북한의 공산정권을 고립하고 견제하

는 정책이라고 노무현대통령의 대미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 단순한 현성권의 대미정책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아니며, 민족모순에 의한 변혁투쟁의 관점 그리고 북한 대남전략에 대한 지지의 측면이다.

pp.18-23의 <첨부자료 3 미군장갑차 결과보고> 하의 내용 전체

5) 이외의 다양한 내용 역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의 주장이다.

3. 總 評

‘한청협’이라는 단체에 의한 <3차 중앙상임위원회>라는 제목하의 문건의 내용을 분석했다.

‘한청협’이라는 단체 관련의 방대한 분량에 해당하는 문건의 내용이며, 기본적으로 청년단체가 아닌 북한의 남한의 공산화를 전제하는 투쟁의 실천 목적의 불법의 투쟁체인 ‘범민련’이라는 조직의 투쟁목적과 맥락을 같이하는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언급하고 있다.

2004년 현재의 시점에서 청년활동은 민족모순에 의한 변혁투쟁의 실천에 선봉이 되며, 노동 농민운동과의 연대투쟁의 선봉이 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남한공산화를 전제하는 투쟁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언급의 문건이다. 특히 변혁투쟁의 실천을 언급하고 있다.

전체는 NL과 관점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실천 선전 선동>의 문건이다.

2004年 5月 17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오 문 균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제3기 6차 중앙상임위원회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003. 9. 17)

2. 分 析

가. 文 件 概 要

1)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제3기 6차 중앙상임위원회 자료집으로, 미국의 대북전쟁정책 반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민족공조 및 민족대단결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사회가 6자회담후 북한의 일괄타결안, 동시행동원칙에 공감하며, 미국은 걸림돌이라 지적하고 있는 총 7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2/4분기 평가에서 미국의 대북전쟁정책 반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위한 결의대회 등을 다루고 있음(1-7쪽).
- 2) 한청 이적규정 저지 투쟁 및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선전하고 있음(3, 6-7쪽).
“앞으로 이적규정저지 투쟁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연동하여 전개할 필요가 제기된다” (3쪽)
- 3) 국제사회가 6자회담후 북한의 일괄타결안, 동시행동원칙에 공감하며, 미국은 걸림돌이라 지적하고 있음(5쪽).
“회담 결과 미국은 걸림돌, 북한의 제안은 합리적이며.....중략.....미국의 입장에서 회담을 박차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 4) 민족공조 및 민족대단결을 주장하고 있음(6-7쪽)

| 주요 주장 | 북한의 선전 내용 |
|------------------------------------------------------------------------------------------------------------------------|-------------------------------------------------------------------------------------------------------------------------------------------------------------------------------------------------------------------------------------------------------------------------------------------------------------------------|
| <p>“7월 들어 미국의 한반도전쟁반대의 구호에서 미국의 대북전쟁정책 반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여 정세에 조응하였으며, 집중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8.15까지의 흐름을 상승시켜 나갔다” (3쪽)</p> | <p>“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한강토 위에서 한 핏줄을 이으며 찬란한 민족사를 개척해온 민족답게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위업을 추동해나가야 한다” “오늘 민족공조를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은 미국이다”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공동사설,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4. 1. 1)</p> |
| <p>“따라서, 6.15공동선언 이행투쟁의 방향은 수구세력의 반통일성을 적극 폭로하고 규탄하는 투쟁과 민족공조, 민족교류운동을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6쪽)</p> | <p>“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이후 힘있게 추진된 민족자주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민족공조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의세에 의존하던 낡은 시대의 관념을 버리고 동족과 공조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로동신문,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 높이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자”, 2004. 1. 3)</p> |
| <p>“첫째, 계기별 반미반전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여론공세를 강화한다” (6쪽)</p> | <p>“조선반도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으로 된다. 북과 남의 온 겨레가 떨쳐나 미제의 광란적인 핵소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평화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남조선에서 미군철수투쟁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된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자!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담보는 조미불가침조약 체결에 있다. 모두다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을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나서자!”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2003. 3. 18.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p> |

3. 總 評

본 문건은 국제사회가 6자회담후 북한의 일괄타결안, 동시행동원칙에 공감하며, 미국은 걸림돌이라 지적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전쟁정책 반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민족공조 및 민족대단결을 주장하고 있는 등 북한정권의 대미, 대남 투쟁노선에 동조하고 있으나, 혁명투쟁목표나 실천방법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문건임. (북한의 대남투쟁노선 동조)

2004 年 5 月 17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崔 景 煥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청 2차 통일일꾼수련회 ”

나. 作 成 者: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상동 (2004. 5. 8)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발행한 ‘한청 2차 통일일꾼 수련회’자료집으로서, 미국의 한반도전쟁책동과 한미군사공조를 막아내는 반미자주화운동을 제기하고, 나아가 민족공조와 민족대단결로 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청 이적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미국의 한반도전쟁책동과 한미군사공조를 막아내는 반미자주화운동을 제기하고, 나아가 민족공조와 민족대단결로 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효순이 미선이 ... 반미자주화운동의 큰 성장을 이룩한 투쟁이다. ... 한청은 대중 속에서 미국의 한반도전쟁책동과 한미군사공조를 막아내고 민족공조, 민족대단결로 결속시켜 조국통일의 전성기를 열어야 할 것이다.”(19쪽)

2)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청 이적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청 이적규정 철회의 사회적 여론을 쟁점화하자! ... 국가보안법을 철폐 또는 사문화시키고 통일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의 골레인 이적규정을 이 세상에서 없애야 한다.”(18쪽)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의 한반도전쟁책동과 한미군사공조를 막아내는 반미자주화운동을 제기하고, 나아가 민족공조와 민족대단결로 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2)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청 이적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본 문건은 위와 같이 북한의 대남투쟁노선과 같은 맥락에서 반미자주화투쟁과 민족공조, 국보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투쟁목표나 실천방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문건임. (북한의 대남투쟁노선 동조)

2004 年 5 月 28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정 원 영

印

I. 對 象

가. 文 件 名 : 국가보안법폐지 자료집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상동(19쪽)

II. 分 析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집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역사복원이며 역사복원 과정 속에서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는 역사바로세우기”임을 주장하고 있다.(4쪽)

둘째, 이른바 “국가보안법은 인류의 보편적 자연권적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민주주의 압살은 정치·사상적 측면을 넘어 지배이데올로기의 기제로 활용되어 경제적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5쪽)

셋째, 이른바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통일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조문들이 바뀌어야 가능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한반도 평화변영은 국가보안법 폐지에서부터”임을 주장하고 있다.(6쪽)

넷째, 이른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강령은 “한국사회가 외세에 대해 보다 자주화되고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보다 민주화되며,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결국은 민중들이 삶의 질이 점차 높아지는 복지국가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을 문제 삼기에는 북한의 대남투쟁 노선을 찬양 동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9쪽)

다섯째, 이른바 ‘연방제’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바, 한청 강령의 ‘연방제 통일’은 미국식의 연방제임을 언급하면서, ‘고려민주연방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임을 주장하고 있다.(9쪽)

여섯째, 이른바 한청 강령에서 중 ‘자주, 민주, 통일’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인문사회학 학계 및 청년학생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았던”것에 근거한 것으로 “외세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비민주적인 법과 제도의 민주화·조국의 통일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임을 주장하고 있는 등 일부 내용 중에서 친북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으나, 북한의 대남투쟁 노선을 찬양 동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9쪽)

일곱째, 이른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 양심적인 사람들의 구속을 끝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4쪽)

Ⅲ.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역사복원이며 역사복원 과정 속에서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는 역사바로세우기”로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주장과 ‘자주, 민주, 통일’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는 등 일부 내용 중에서 친북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으나, 북한의 대남투쟁 노선을 찬양 동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문제삼기 어려움).<끝>.

2004 年 7 月 26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김 윤 영 印

鑑 定 書

045903

1. 對 象

가. 文 件 名 : 성명서

나. 作 成 者 : 전상봉

다. 發 行 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4.7)

2. 分 析

가) 문건의 개요:

이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에서 발표한 성명서로서, 한청에 대한 사법부의 이적단체규정을 비난하고 있음.

나) 내용 분석:

(1) 본 성명서에서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합의24부에서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이적단체 규정을 비난하고 있음.

<예시>

“과연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검찰 공안부가 존재하는 한국사회는 문명사회일 수 있단 말인가”

(2) 본 성명서에서는 한청의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유죄선고와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불인정하여 유죄판결의 파기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3) 본 성명서에서는 한청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의 운용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임.

3. 總 評

이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에서 발표한 성명서로서, 한청에 대한 사법부의 이적단체규정을 비난하고 있음.

본 성명서에서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합의24부에서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이적단체 규정을 비난하고 있음. 본 성명서에서는 한청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하는 한편, 현 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운용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임.

이 문건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지향이나 신념은 표현되어 있지 않음.(문제 없음)

2004年 8 月 2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유 지 응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2004년 8.15에 즈음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결의문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다. 發 行 處(日) : 인터넷 사이트(2004.8.15, 2쪽)

2. 總 括

본 문건은 '한국청년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2004년 8.15에 즈음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결의문"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재판부의 이적단체 판결'을 '패권전략을 추종하는 반민족적 작태'로 규정하는 등(1쪽)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2쪽)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른바 '범민련, 한총련, 한청, 범청학련' 등의 투쟁활동을 당위화하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2쪽)

셋째, 이른바 '범민련, 한총련, 한청, 범청학련'에 대한 당국의 '8.15민족공동행사 참가 불허'를 '대결과 반목'으로 규정하는 등 '8.15민족공동행사 참가 불허'에 대한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2쪽)

넷째, 이른바 '2005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개척'하기(1쪽) 위한 "전상봉 이승호 모범따라 한청이 선봉에서 조국통일원년 맞이하자"는 투쟁 구호를 제시하고 있는 등 일부 내용 중에서 친북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으나, 북한의 대남투쟁 노선을 찬양 동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2쪽)

따라서 본 건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민련, 한총련, 한청, 범청학련'에 대한 이적단체 철폐, 2005년 '조국통일원년 개척' 등을 주장하는 등 일부 내용 중에서 친북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으나, 북한의 대남투쟁 노선을 찬양 동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문제삼기 어려움).<끝>.

2004 年 9 月 6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김 윤 영 印